

# “한산 ‘의향 전남’ 재조명...K영상물 제작 적극 지원할 것”

###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서 영화 ‘한산’ 제작진과 무대인사 전남 도내 숨은 로케이션 장소 발굴 관광명소화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임진왜란 승전의 원동력 ‘의향 전남’을 재조명한 영화 ‘한산’ 뒤를 이을 K영상물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린 영화 ‘한산’ 제작진과 여수소재 영화관에서 무대인사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대인사에는 김한민 감독을 비롯해 이순신 장군 역의 박해일, 왜장 악키자키 역 변요한,

준사역 김성규 배우 등이 함께했다.

김한민 감독은 “‘한산’ 제작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전남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영화를 만들어 각별한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무공계선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의향 전남의 선조들은

임진왜란 당시 군사 확보와 군량미 보급, 배를 만들고 물길을 알려주는 등 승전의 원동력이었다”며 영화 ‘한산’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또 “케이(K)-무비, 케이(K)-드라마의 세계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촬영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숨은 로케이션 장소를 적극 발굴해 관광명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2014년 영화 ‘명량’ 제작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여수시, ㈜박스툰픽처스와 함께 ‘한산’, ‘노랑’ 세트장 제작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세 번째)가 15일 오후 여수웅천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한산’ 무대인사 행사에서 김한민 감독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 제수·선물용 식품 등 200여 건...유해물질 집중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맞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오는 17일부터 제수·선물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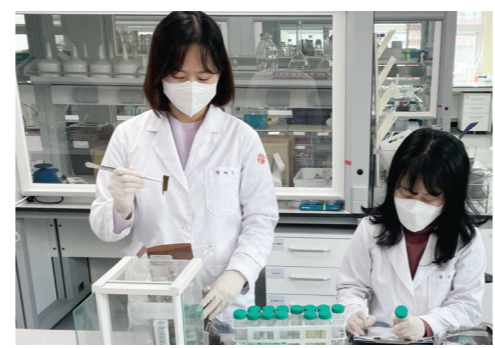
검사 대상은 광주에서 유통중인 떡류·과자류·전류·과일·채소·수산물 등 200여 건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약과 등 과자류·식용유 지류는 산가(기름 부패도) ▲동태전 등 즉석섭취식품은 식중독 원인균 ▲채소류·과일류는 잔류농약 340종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67

종·중금속·방사능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국 유통기관에 즉시 알려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조배식 식품의약품 연구부장은 “추석에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유해물질 정밀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음식 조리·보관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전남도, 10월말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전남도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민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추진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가 함께 진행한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보건소에서 교육을 마친 숙련된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만9000명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항목을 138개 문항으로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했다.

주요 조사영역은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를 비롯해 만성질환,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이다.

조사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최고의 수학여행지로 각광

### 볼거리·생태체험 가득한 수학여행 최적지...캠투어 인기 급부상



지난 9일 제주교육청 소속 직원과 제주도 초·중·고 교사 24명이 ‘23년도 수학여행’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답사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방문했다.

이런 캠투어는 달라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설명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수학여행 코스와 생태체험 등을 소개하여 박람회 기간 수학여행단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답사에 참가한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순천시민들의 노력과 국가정원 조성과정,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대된다”며 “2023정원박람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제주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교육현장에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전남 경관 바꿀 ‘참신한 간판디자인’ 찾는다

### 전남도, 9월27일까지 옥외광고대전 출품작 모집

전남도가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줄 참신한 간판디자인을 공모한다.

전남도는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발굴·장려하고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제20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출품작을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옥외광고대전은 남도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간판 조형물과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우수옥외광고물(장작·기준) 분야와 예쁜 간판그림 등 4개 유형으로, 광고업 종사자,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거주지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면 새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나 협회 시·군 지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독창성, 창의성, 조형성, 소재활용성, 상품성, 윤리성 등을 중점 평가해 오는 10월7일 전남도 누리집에

입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0월19일 제20회 전라남도옥외광고대전에서 하고, 21일까지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입상작을 전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061-245-4004)로 문의하거나,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영진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국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간판디자인 작품이 많이 출품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광고업계의 디자인 능력 향상과, 아름다운남도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최된 제19회 옥외광고대전에선 창작 광고물 모형 등 총 269개 접수 작품 중 대상 등 70점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시상·전시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이뤄졌다.

이슬비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Philanthropy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0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건강보험 혜택 183,061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부담액	급여액	비율
240,833원	125,531원	1.7배
78,147원	48,103원	2.7배
26,697원	127,000원	5.3배

고소득층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공적연립 12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